

노(能)에서의 요시쓰네(義経) 전설 수용

— 〈에보시오리(烏帽子折)〉의 인물상을 중심으로—

이윤지*

survivan@korea.ac.kr

Contents

1. 들어가며
2. 마에시테(前シテ)—에보시오리(烏帽子折)의 조형
3. 노치시테(後シテ)—구마사가 조한(熊坂長範)의 조형
4. 고카타(子方)—우시와카마루(牛若丸)의 조형
5. 맺음말을 대신하여

Abstract

源義経は、その活躍の鮮烈さと不遇の晩年、悲劇的な最期から、古くから多くの人気を集め、日本史上最も有名な英雄の一人に数えられる。その謎に包まれた生涯は世人の興味を引き、様々な伝説、物語を産んだ。古くは『平家物語』などの一連の軍記物で形象化され、室町時代の『義経記』で極端な伝説化の頂点に達して、さらにはそこから枝分かれする様に色々な物語が派生して、能や幸若舞、浄瑠璃、歌舞伎などで『判官物』といわれる芸能が多数生まれるに至った。

本稿では、一連の判官物の中で、牛若丸から源九郎判官義経への門出を描いた作品として注目すべき能〈烏帽子折〉を中心に、周辺の文芸との交渉に留意しつつ、その人物像を具体的に把握していきたい。同様のエピソードは、『義経記』では巻第二「鏡の宿吉次が宿に強盗の入る事」と「遮那王殿元服の事」に記され、語り物では幸若舞「烏帽子折」として作品化されている。しかし、この三つの作品の先後関係については不明な点が多く、要するに現存テキストより一段階前における、それぞれの錯綜した関係において考える必要がある。

もともと義経の生涯には謎が多く、それだけに数々の伝承が語り伝えられ、それが日本人一般の中にある義経像を作り出したと言える。『義経記』や幸若舞「烏帽子折」を参照しながら、能〈烏帽子折〉の前場に現れる烏帽子折の亭主と、後場の熊坂長範、そして実質的な主役と言える牛若丸のキャラクターについて考察し、義経伝説が文芸を媒体として拡散していく過程を検討してみたいと思う。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일본중세문학 전공.

Key Words : 烏帽子折、判官物、源義経、義経伝説、能、謡曲

(Eboshi-ori, Hogan-mono, Minamoto no Yoshitsune, The Legend of Yoshitsune, Noh Drama, Yokyoku)

1. 들어가며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経; 1159-1189)¹⁾는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등에 묘사된 겐페이 전투(源平合戦)에서의 장려한 활약상과, 그와 대조적인 불우하고 비극적인 최후로 인하여 예로부터 민중의 동정과 인기를 얻어 왔으며, 그것은 ‘호간모노(判官物)’라 불리는 일련의 요시쓰네 관련 문예가 범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비운의 무장』이라는 호칭과 함께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요시쓰네의 일생은 그 대부분이 수수께끼에 싸여 있으며, 그에 대하여 전해지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상은 요시쓰네 ‘전설’이라는 명칭으로 대변되듯이 역사적 근거와는 무관한 후세의 창작이나 공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겐페이 전투를 경계로 요리토모(頼朝)의 막하에 참전하기 이전의 시기와 요리토모와의 불화 이후 사망하기까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헌이나 기술은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으며, 결국 그 사적 근거의 공백이 이후 다양한 전설과 문학이 나타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시와카마루(牛若丸) 시대, 즉 요시쓰네의 유년 시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매우 빈약하다. 헤이케(平家) 토벌의 기치를 올린 요리토모와 기세가와의 진(黃瀬川の陣)에서 대면하기까지의 전반생에 대한 기술은 『아즈마카가미(吾妻鏡)』의 지쇼(治承) 4년(1180년) 10월 21일조의 내용이 전부로, 시마즈 히사모

1) 헤이안(平安) 말기-가마쿠라(鎌倉) 초기의 무장. 가와치 겐지(河内源氏)의 당주(当主)인 요시토모(義朝)의 9남(8남이라는 설도 있음). 모친은 도키와(常盤). 아명은 우시와카마루(牛若丸). 헤이지의 난(平治の乱)으로 부친이 패사한 후 구라마데라(鞍馬寺)에 맡겨졌으며, 이후 오슈(奥州)의 후지와라노 히데히라(藤原秀衡)의 세력 하에 몸을 의지했다. 이복형 요리토모(頼朝)의 거병에 응하여 요시나카(義仲)를 토벌하고 이치노타니(一ノ谷)·야시마(屋島)·단노우라(壇ノ浦)의 전투에서 헤이케(平家)를 물리쳐 겐지(源氏)의 승리를 이끌었다. 헤이케 멸망 후 요리토모와의 불화로 인하여 재차 오슈로 도피하나 히데히라의 사후 그 뒤를 이은 야스히라(泰衡)의 습격을 받아 고로모가와(衣川)에서 자결했다고 전한다. 비극의 영웅으로서 수많은 전설과 문학의 주인공이 되었다. 통칭 구로 호간(九郎判官).

토(島津久基)는 “(요시쓰네의 일생을) 3기 내지 4기로 분류하여 그 중 가장 사실적 색채가 희박하고, 다수가 준(准) 신화적 혹은 동화적 설화에 기울어지는 것은 이 시기이다”²⁾라고 설명한다. 미래의 영웅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공상적이고 동화적인, 인물의 비범함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요시쓰네 유년기 전설의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을 보낸 구라마야마(鞍馬山)를 탈출한 우시와카마루가 히데히라(秀衡)의 세력을 바라고 오슈(奥州)로 향하는 도중 스스로 관례를 치르고(牛若元服), 그들 일행을 습격한 도적 구마사카 조한(熊坂長範)을 물리쳤다는(盜賊退治) 두 가지의 전설을 토대로 각색된 노(能) 〈에보시오리(烏帽子折)〉³⁾를 통하여 요시쓰네 전설이 문학화·구체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겐푸쿠(元服) 전후의 사건을 그린 스토리인 만큼 요시쓰네 유년기 전설 중에서는 시기적으로 가장 마지막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노에서도 고카타(子方)가 우시와카로서 시테(シテ)의 축언(祝言) 아래 성년식을 치르고, 이로써 아역을 졸업하여 성인의 대열에 합류한다는 의미가 있는 곡목이기도 하다. 2011년 6월, 간제류(観世流) 26대 종가인 간제 기요카즈(観世清和)와 사부로타(三郎太) 부자가 각각 이 곡의 시테와 고카타를 담당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유년기 요시쓰네 전설을 소재로 하는 현행곡의 배역과 해당 인물(시대 배경 순)

	シテ		ワキ	ツレ	子方
鞍馬天狗 (五番目物)	山伏	大天狗	鞍馬東谷の僧		牛若(源義経)
橋弁慶 (四番目物)	武蔵坊弁慶				牛若(源義経)
烏帽子折 (四番目物)	烏帽子屋の亭主	熊坂長範	三条の吉次	烏帽子屋の妻	牛若(源義経)

이 이야기는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로 접어드는 우시와카의 빼어난 무용을 찬양하기 위한 전형적 영웅담의 성격을 띠고 있어 『헤이지모노가타리(平治物

2) 島津久基(1977) 『義経伝説と文学』 大学堂書店、p.196.

3) 고명(古名)은 「現在熊坂(げんざいくまさか)」, 사후(死後)의 구마사카 조한(熊坂長範)이 등장하는 노(能) 〈구마사카(熊坂)〉를 「幽霊熊坂(ゆうれいくまさか)」라 하여 구분한 명칭이다. 간제류(観世流)·호쇼류(宝生流)·곤고류(金剛流)·기타류(喜多流) 현행곡.

語』, 『기케이키(義經記)』 등의 군키모노(軍記物) 외에도 고와카마이(幸若舞), 조루리(淨瑠璃) 등 다양한 예능의 소재로 인기리에 수용되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노 〈에보시오리〉에 나타난 인물상을 동시대에 창작된 『기케이키』와 고와카마이 『에보시오리』의 그것과 비교하여 전설이 재구성되는 양상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2. 마에시테(前シテ)—에보시오리(烏帽子折)의 조형

노 〈에보시오리〉의 전장(前場)은 우시와카마루의 겐푸쿠, 즉 그가 오슈로 향하는 도중 관례를 올렸다는 일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 『아즈마카가미』에도

此主者。去平治二年正月。於襤褸之內。逢父喪之後。依繼父一條大藏卿(長成)之扶持。爲出家登山鞍馬。至成人之時。頻催會稽之思。手自加首服。恃秀衡之猛勢。下向于奥州。歷多年也。而今傳聞武衛被遂宿望之由。欲進發之處。秀衡強抑留之間。密々遁出彼館首途。(하선 인용자, 이하 동일)

『吾妻鏡』第一 治承四年十月二十一日

와 같은 구절이 보이는 바, 요시쓰네가 오슈 행 전후로 관례를 치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사실로 추측된다. 이 “手自加首服(스스로 관례를 올렸다)”라는 단순한 기술에 후세의 상상력이 덧붙여져 그의 관례를 둘러싼 전설이 본격화되었고, 본곡을 비롯한 각종 문학과 예능에서 그것을 수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각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관례를 올렸다”는 문구에서도 엿보이듯 헤이케의 천하에서 정식으로 식을 치를 수 없었을 요시쓰네의 불우한 상황을 배경으로, 그에 적합한 인물과 이야기가 창작되었던 것이다.

‘에보시(烏帽子)’란 성인 남성이 착용하는 두건의 일종이며, 본곡의 제목인 동시에 마에시테(前シテ)로 등장하는 ‘에보시오리’는 그 에보시를 만드는 직인(職人)이다. 소년이 성인 남성으로 인정받는 의식을 상징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라 하겠으나 이 에보시오리라는 인물 또한 사실적 근거가 희박한 공

상의 소산으로, 가령 요시쓰네 전설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기케이키』에 묘사되어 있는 요시쓰네의 관례 장면은 다음과 같다.

熱田の前の大宮司は、義朝の舅なり。今の大宮司は、小舅なり。兵衛佐殿の母御前も熱田のそとの政所と申す所にておはします。父の御形見と思し召し、吉次をもつて申されければ、大宮司いそぎ御迎へに人を參らせ奉り、やうやうに勞り參らせ、やがて次の日發たんとし給へば、さまざまに誨め參らせて、その日も留め奉り、とかくする程に、三日熱田にぞおはします。

遮那王殿吉次に仰せられけるは、「童にて下らんも悪し。かり烏帽子なりとも着て下らばやと思ふは、いかがあるべき」とのたまへば、吉次、「いか様にも御計らひ候へ」と申しければ、大宮司烏帽子奉る。御櫛けづりとりあげ、烏帽子をぞ召されける。

『義経記』卷第二 遮那王殿元服の事

『기케이키』 속의 샤나오(遮那王)⁴⁾는 아쓰타 신궁(熱田神宮)에서 신관의 집례로 관례를 올린다. 관례 시 착용할 에보시를 둘러싼 에피소드나 에보시오키라는 인물은 아예 등장하지 않으며, 단순히 예식을 주관하는 아쓰타의 신관이 “에보시를 바쳤다”라는 묘사만 있을 뿐이다. 또한 『헤이지모노가타리』에도 “품에서 에보시를 꺼내어 썼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특별히 에보시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其日、鏡の宿に着て夜半ばかりに、手づから髪をとりあげて、日来、武勇せんとして懐に持たりける烏帽子、取出して着てけり。翌朝うち出ける時、陵助、「御元服、候けるや。御烏帽子父は、」「みづから」「御名はいかに」「源九郎義経候ぞかし。弓箭がなくては叶まじ」と有しかば…… (後略)

『平治物語』卷之三 牛若奥州下りの事

관례 장소도 『헤이지모노가타리』의 경우 가가미의 숙소(鏡の宿), 『기케이키』

4) 『기케이키(義経記)』에서는 구라마야마(鞍馬山)에 들어간 후 관례를 올리기까지 지고명(稚児名)인 ‘샤나오(遮那王)’를 사용하고 있다.

의 경우 아쓰타 신궁으로 다르게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제목이나 그 구성 면에서 가장 노 〈에보시오리〉와 근접하다고 할 수 있는 고와카마이 『에보시오리』를 보면,

「いや、苦しうも候はず。吉次信高の供して下る冠者にて候が、烏帽子の所望にて是迄参りて候」。その時、烏帽子折の太夫、牛若殿を請じ申、「冠者殿の召されうずる烏帽子は、大皷候か、小皷候か。しんせい様、当世様、いかやう成を召されうぞ。御好み候へ。やがて折つて参らせう」。

幸若舞『烏帽子折』

와 같이 우시와카가 에보시를 구하는 대사와 함께 에보시오리가 등장하며, 그 배경은 가가미의 숙소로 『헤이지모노가타리』·노 〈에보시오리〉와 동일하다.

『기케이키』와 노 〈에보시오리〉·고와카마이 『에보시오리』의 성립 내지 선후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요시쓰네의 겐푸쿠를 둘러싼 전설이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동일하게 에보시오리에 관한 전설을 수용한 노 〈에보시오리〉와 고와카마이 〈에보시오리〉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모습도 그 작자의 창작 태도 하에 뚜렷하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노 〈에보시오리〉의 에보시오리는 시테, 다시 말하자면 본곡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사실 〈에보시오리〉를 비롯하여 유년기의 요시쓰네를 다룬 곡은 엄밀하게 그 내용적으로 시테보다도 고카타로 등장하는 우시와카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⁵⁾고 할 수 있으나, 형식상으로 노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시테인 이상 그 배역에 담긴 의미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노와 고와카마이에 나타난 에보시오리의 역할과 성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두 작품에 공통되는 부분은 에보시오리가 헤이지의 난(平治の亂)에서 패사한 요시쓰네의 망부 요시토모(義朝)의 가신, 가마타 마사키요(鎌田正清)의 여동생

5) 〈구라마텐구(鞍馬天狗)〉〈하시벤케이(橋弁慶)〉도 그 내용적으로는 우시와카가 주역이라 할 수 있으며, 가령 기타류의 참고곡(参考曲) 〈세키하라요이치(関原与市)〉의 경우, 고카타(子方)가 시테(シテ)를 담당하는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실의시대의 무력한 성인 요시쓰네의 역할을 대신하는 〈후나벤케이(船弁慶)〉〈아타카(安宅)〉 등의 고카타와 달리 유년시대, 즉 우시와카에 해당하는 고카타는 아역일지라도 시테 혹은 시테에 준하는 비중을 지니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을 처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우시와카가 에보시에 대한 사례로 건넌 검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숨겨 왔던 자신의 신상을 남편에게 고백한다.

ツレ「今は何をか包むべき。これは野間の内海にて果て給ひし。鎌田兵衛正清の妹なり…… (後略)

能 〈烏帽子折〉

女房聞て、「今は何をか包み候ふべき。さては先ほどに、烏帽子折らせ給ひたる冠者殿は、自らがためには、三代相恩の主君にて御座候ひけり…… (中略) ……自らをば、いかなる者と思し召すぞ。これは一年、尾張の国野間の内海にて失せ給ひし義朝の御内、鎌田のためには妹なり…… (後略)

幸若舞「烏帽子折」

가마타 마사키요란 요시토모의 젓형제이며, 고와카마이 「에보시오리」의 대사에서도 보이듯 오와리(尾張)에서 주군과 함께 생을 마쳤다고 전해지는 요시토모의 들도 없는 고굉지신이다, 따라서 에보시오리는 여느 직인이 아니라 요시쓰네와 전혀 타인이 아닌, 부친과 인연이 있는 인물로 조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례의 조력자가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가문, 특히 부친과 연을 맺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에보시오리가 등장하지 않는 『기케이키』도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기케이키』에서 요시쓰네의 관례를 주관하는 아쓰타의 현 신관은 요시토모의 처남이며, 전 신관은 요시토모의 장인이다. 단, 이들은 다름 아닌 요시쓰네의 이복형이자 겐지(源氏)의 당주(当主)인 요리토모의 외가 친척에 해당한다. 물론 기케이키의 경우 요시쓰네와 요리토모의 관계를 미화하기 위하여 이들의 형제애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며 요리토모보다도 가지와라 가게토키(梶原景時)에게 악역을 전담케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요시쓰네 전설에서 필연적으로 적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요리토모 관계의 인물들을 조력자로 내세우는 것은 다소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에보시오리 전설은 이와 같은 점에서 온전히 요시토모-요시쓰네 부자관계만을 강조하는 입장이 엿보인다.

그러나 에보시오리는 일개 직인에 불과하다. 아쓰타 신궁의 신관과 달리 미

래의 영웅의 관례에 입회하기에는 지나치게 미천한 신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와카마이 『에보시오리』의 경우 우시와카의 관례를 지켜보고 그의 앞날을 축원하는 것은 에보시오리가 아닌, 지금껏 가마타 마사키요의 여동생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온 그 처의 역할이다. 그에 비하여 에보시오리 자신은 극히 범용한 인물로, 겐지의 자체에 허용되는 “左折り”⁶⁾의 에보시를 원하는 우시와카를 꾸짖으며, 우시와카는 그런 그를 “おかしく” 생각하며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어 무마하는 것으로 그들의 만남이 희화화되고 있다.

「なふ、太夫殿。此冠者が着うずる烏帽子は、それなる大皺に粒のちつとあららか成を、一くせみくせませ、皺形にあひをあらせ、櫛形をいがいがと一ためためて、左へ折りて賜ひ給へ。その時、烏帽子折の太夫、殊の外に腹を立て、「されば、あの様なる下蕨に物を好まずれば、わが身のくわかひのほどをも知らず。事もかたじけなや……（中略）……わ殿ばらがやうに吉次が供をする冠者が、左折りを着うずる事、思ひも寄らぬ所望かな。牛若おかしく思召……（後略）」

「この烏帽子を召されて奥へ下らせ給ひ、佐藤、秀衡を御頼み有て、数万騎を引率し、平家の人々を御心のまゝに亡ぼし、今一度御代に立たせ給へ。暇申て、若君」とて、女房宿にぞ帰りける。

幸若舞「烏帽子折」

설정 상 요시토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은 에보시오리의 처인 만큼 무난한 역할 배정이라 할 수 있고, 고와카마이의 에보시오리는 단순히 그 남편으로서 관례에 필요한 에보시를 조달하기 위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후 동일한 소재를 다룬 오쿠조루리(奥浄瑠璃)나 지카마쓰(近松)의 조루리 『에보시오리』에서는 그 속물성이 한층 과장⁷⁾되어, 조루리 『에보시오리』에 등장하는 에보시오리는 조력자의 입장은커녕 상금을 목적으로 우시와카를 헤이케에 밀고하기까지에 이른다.

이처럼 에보시오리 전설에서 요시쓰네의 조력자로서 스토리의 키를 잡고 있

6) 에보시(烏帽子)의 윗부분을 왼쪽으로 접는 것. 겐지는 왼쪽, 헤이케는 오른쪽으로 꺾는다.

7) 内山美樹子(1997) 「『烏帽子折』をめぐって」 芸能史研究(138)、芸能史研究会、p.18.

는 것은 에보시오리보다도 오히려 그 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노 〈에보시오리〉의 에보시오리는 “左折り”의 에보시를 원하는 우시와카를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고와카마이의 그것처럼 불쾌한 태도는 보이지 않고, 그 에보시의 유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シテ「さても某が先祖にて候ふ者は、もとは三条烏丸に候ひしよな。いで其頃は八幡太郎義家。安部の貞任宗任を御追罰あつて。程なく都に御上洛あり。某が先祖にて候ふ者に。この左折の烏帽子を折らせられ。君に御出仕ありし時。帝なのめに思し召され。其時の御恩賞に。奥陸奥の国を賜つて候。われらもまた其如く。嘉例めでたき烏帽子折にて候へば。此烏帽子を召されて程なく御代に。

地謡「出羽の国の守か。陸奥の国の守にかならせ給はん御果報あつて。世に出て給はん時。祝言申しゝ烏帽子折と。召されめでたう引出物たばせ給へや。あはれ何事も。昔なりけり御烏帽子の左折のその盛。源平両家の繁盛花ならば梅と桜木。四季ならば春秋。月雪の眺いづれぞと。争ひしにやいつの間に。保元のその以後は。平家一統の。世となりぬるぞ悲しき。よしそれとても報あらば。世変り時来り。をり知る烏帽子桜の花。咲かん頃を待ち給へ。

能 〈烏帽子折〉

겐지의 선조인 하치만타로 요시이에(八幡太郎義家; 1039-1106)⁸⁾가 에보시오리의 선조가 만든 에보시를 쓰고 아베(安倍) 씨를 무찌른 공으로 무쓰노카미(陸奥守)가 되었던 과거의 일처럼, 우시와카 역시 자신이 만든 에보시를 쓰고 공명을 세우게 되리라는 축복의 말이다. 소년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그 기량을 간파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있는 인물, 겐지 가문과의 오랜 인연 하에서 요시쓰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원해 주기 위한 인물로 조형된 시테의 캐릭터는 이 전설을 수용한 문학 작품 중에서도 본곡만의 독자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단순히 비천한 직인이 아니다. 하치만타로 요시이에라는 영웅에게 에보시를 바친 유서 깊은 가계의 장인이며, 그에게

8) 미나모토노 요시이에(源義家). 헤이안 후기의 무장으로 요리요시(頼義)의 장남. 통칭 하치만타로(八幡太郎). 전구년의 역(前九年の役)에서 부친과 함께 아베(安倍) 씨를 토벌하고 이후 무쓰노카미(陸奥守) 겸 진수부장군(鎮守府將軍)이 되어 후삼년의 역(後三年の役)을 평정했다. 동국에서의 겐지 세력의 기틀을 다진 인물.

서 에보시를 받아 쓰는 것은 곧 요시이에의 재래(再来)이자 겐지의 시대를 다시 열게 될 미래의 영웅으로서 축복을 받는 의식인 것이다.

우시와카의 검을 알아본 아내의 고백을 통하여 그 신분을 알게 된 후에도 노와 고와카마이의 에보시오리는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シテ「げにげに承り及びたる御腰の物にて候。さては鞍馬の寺に御座候ひし。牛若殿にて御座候ふな。さあらば追つつき。この御腰の物を参らせ候ふべし。おこともわたり候へ。や。未だこれに御座候ふよ。これに女の候ふが。此御腰の物を見知りたる由申し候ふ程に。召し上げられて給はり候へ。

能 〈烏帽子折〉

(前略) ……九年の情けに、その刀を自らに賜べかしなふ。我君の、奥州へとはるばる御下りましますに、奥はなむけに参らせん」。太夫聞て、「なかなかの事。夫婦偕老鍛接の、わりなき妹背の中なれば、何をかさして惜しむべき」と、女房に取らす。女房、斜めに喜ぶで、瓶子一具、蝶花かたに口包み、小結取り添へ、吉次が宿へ尋ね入り、「案内申さう」。

幸若舞「烏帽子折」

노의 에보시오리가 술선하여 아내를 데리고 검을 다시 바치기 위해 우시와카의 숙소로 향하는 것에 비하여, 고와카마이의 에보시오리는 부부의 정을 생각하여 검을 자신에게 달라는 처의 청을 승낙할 뿐이다.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우시와카에게 검을 되돌려주고 그의 앞날을 축원하는 것도 남편이 아닌 그녀의 역할이다. 따라서 노의 시태는 고와카마이의 에보시오리와 같이 단순히 에보시라는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게와 그가 만든 에보시를 통하여 소년 영웅의 앞날을 예견하고 축복하기에 어울릴 만한 인물로 조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노치시테(後シテ)—구마사카 조한(熊坂長範)의 조형

〈에보시오리〉의 후장(後場)은 요시쓰네의 도적 퇴치담을 그리고 있다. 도적 퇴치담 역시 『기케이키』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 작품의 소재로 다루어져 왔으며, 일반적으로 겐푸쿠 전설과 결부되어 그려진다. 사나리 겐타로(佐成謙太郎)가 “두 가지의 요시쓰네 전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중략)……희곡의 주역인 시테는 제1단과 제2단이 전혀 별개의 인물이다. 그것이 본곡의 가장 큰 결점이다”⁹⁾라 지적한 바 있으나, 관례 직후 벌어지는 이 도적 퇴치극은 인류학이나 신화학에서 말하는 소위 성인식에 따른 ‘시련’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구라마(鞍馬)의 다이텐구(大天狗)를 스승으로, 히에이잔(比叡山)의 악승(悪僧) 무사시보 벤케이(武蔵坊弁慶)를 부하로 삼은 우시와카가 성년이 되어 맞닥뜨릴 최초의 적 또한 관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이야깃거리였음에 틀림없다.

사실무근의 사건인 까닭에 노 〈에보시오리〉에서는 아카사카의 숙소(赤坂の宿), 고와카마이 『에보시오리』에서는 아오하카의 숙소(青墓の宿), 그리고 『기케이키』에서는 노와 고와카마이에서 겐푸쿠 장소가 되었던 가가미의 숙소가 배경이 되는 등 그 무대도 가지각색이나, 상세한 지명은 다들지라도 이 두 가지의 전설이 교토(京都)를 떠나 오슈로 향하는 도중에 위치한 오미노쿠니(近江国)와 미노노쿠니(美濃国) 부근을 배경으로 성립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단 『기케이키』의 경우 오미노쿠니의 가가미의 숙소에서 벌어지는 도적 퇴치 사건이 선행하고, 노와 고와카마이의 경우 가가미의 숙소에서 관례를 치른 후 미노에 이르러 그들 일행을 습격한 도적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 일당의 수령이 바로 〈에보시오리〉의 노치시테(後シテ)인 구마사카 조한이다.

구마사카 조한은 〈에보시오리〉를 비롯한 요시쓰네 도적 퇴치담에서 이들 일행을 습격하는 도적의 우두머리로 등장한다. 도둑 근성을 나타내는 ‘熊坂心(くまさかごころ)’라는 단어가 남아 있을 만큼 도적의 대명사로 유명한 인물이며, 우시와카에게 패함으로써 소년의 무예와 기량을 증명하기 위한 강적으로 조형되었다는 점에서는 하시벤케이 전설(橋弁慶伝説)의(=가신이 되기 전의) 벤케이

9) 佐成謙太郎(1964) 『謡曲大観』第五卷、明治書院、pp.3414-3415.

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설적인 도적과 소년 영웅의 조우라는 사건은 전항의 에보시오리 전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가령 『기케이키』에서 가가미의 숙소를 습격한 도적들을 이끄는 것은 유리노 다로(由利太郎)와 후지사(後地)와 뉴도(藤沢入道)의 2인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조한의 이름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由利太郎、藤沢入道に言ひけるは、「いかがすべき、都に聞こゆる吉次といふ黄金商人こそ、奥州へ下るとて、多くの宝を持たせて、今宵長者のもとに宿したんなれ。いかがすべき」と言ひければ、藤沢入道、「それこそ、や殿、順風に帆、流れに棹よ。押し寄せて、しやつが商ひの元手、若党どもが洒手にくれて通らぬか」とて、出で立ちけり。

『義経記』卷第二 鏡の宿吉次が宿に強盗の入る事

그러나 영웅담에 불가결한 것은 주인공과 대결할 강력한 적이다. 『기케이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대도적 구마사카 조한이 우시와카와 기치지(吉次) 일행을 노리는 역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역시 유리노 다로 등에 비하여 전자가 보다 매력적인 캐릭터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노 〈에보시오리〉는 고와카마이 『에보시오리』와 더불어 구마사카 조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最古)의 작품이며, 따라서 후세에 조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본항에서는 구마사카 조한이라는 캐릭터가 이후 요시쓰네 전설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원인을 〈에보시오리〉의 인물 조형 의도와 관련지어 살펴보기로 한다.

후장의 구성은 전장에 비하여 극히 단순하다. 사장(詞章) 자체가 기리쿠미(切組・斬組)의 하타라키고토(働き事)를 염두에 두고 창작되었음을 이카이 다카미쓰(伊海孝充)가 지적¹⁰⁾한 바 있듯이, 사실 〈에보시오리〉의 후장은 시태와 고카타를 중심으로 다수의 등장인물이 벌이는 화려한 기리쿠미 장면이 역점을 두고 있으며, 사장의 내용도 절반 이상이 전투 장면의 묘사로 점철되어 있다. 무명의

10) 伊海孝充(2009) 『能〈烏帽子折〉の「素材」と変遷 —義経伝承の能の問題点—』 軍記と語り物(45)、軍記・語り物研究会、pp.116-119.

_____ (2003) 『観世信光の切合能』 法政大学大学院紀要(51)、法政大学大学院、p.205.

직인인 에보시오리와 달리 대도적이라는 입장을 과시할 수 있는 구마사카 조한 이기에, 특별한 설정 없이 그를 쓰러뜨리는 장면 자체로 요시쓰네의 활약을 나타내기엔 부족함이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에보시오리>의 작자는 조한을 비범한 인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ツレ「高瀬の四郎はこれを見て。今夜の夜討悪しかりなんとや思ひけん。手勢七十騎にて退いて歸りて候。

シテ「彼奴は今に始めぬ臆病者。さて松明の占手はいかに。

ツレ「一の松明は斬つて落し。二の松明は踏み消し。三は取つて投げ返して候ふが。三つが三つながら消えて候。

シテ「それこそ大事よ。それ松明の占手といつば。一の松明は軍神。二の松明は時の運。三はわれらが命なるに。三つが三つながら消ゆるならば。今夜の夜討はさてよな。

(中略)

シテ「いや熊坂の長範が。今夜の夜討を仕損じて。何くに面を向くべきぞ。唯攻め入れや若者どもと。大音あげて呼ばはりけり。

能 <烏帽子折>

일당인 다카세노 시로(高瀬の四郎)가 요시쓰네의 무예에 겁을 먹고 달아났다는 보고를 듣자 조한은 “彼奴は今に始めぬ臆病者(그 녀석은 예전부터 겁쟁이)”라고 멸시하는 대사를 내뱉는다. 그리고 그 조한 자신은 “臆病者”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햇불의 점괘(松明の占手)에 대한 그의 반응이다.

군신(軍神)을 의미하는 첫 번째 햇불과 시운(時の運)을 의미하는 두 번째 햇불, 그리고 목숨(命)을 의미하는 세 번째 햇불이 모두 꺼진 이상 약탈은커녕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조한은 점괘의 결과에 동요하면서도 결국 그에 굴하지 않는다. 이 습격에서 물러난다면 어디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부하들을 질타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인간을 초월한 무예를 펼치는 정체불명의 소년과 맞서는 것이다.

シテ「熊坂の長範六十三。熊坂の長範六十三。今宵最後の夜討せんと。鉄履を踏ん

脱ぎ捨て。五尺三寸の大太刀を。するりと抜いてうちかたげ。をどり歩みにゆらりゆらりと歩み出でたる有様は。いかなる天魔鬼神も面を向くべきやうぞなき。

能 〈烏帽子折〉

횃불의 점괘라는 소재와 그에 대한 응수도, 그에 굴하지 않고 나서는 조한의 기개도 『기케이키』나 고휘카마이에에는 보이지 않는, 노 〈에보시오리〉 특유의 장면이다. 생명을 아쉬워하기보다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택하는 조한의 모습은 “弥猛心の梓弓、敵には取り伝へじと、惜しむは名のため、惜しまぬは一命なれば、身を捨ててこそ後記にも、佳名を留むべき、弓筆の跡なるべけれ(용맹한 마음으로 활을 적에게 넘기지 않겠노라고, 아쉬운 것은 무명이요, 아쉽지 않은 것은 한 목숨이라, 몸을 아끼지 않았으니 후세의 기록에도 빛나는 이름을 남길 것이요, 이 활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훗날의 발자취로 남으리라)”라고 노 〈야시마(八島·屋島)〉에 묘사된,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활을 건져 왔다는 요시쓰네의 유미나가시(弓流し) 일화와도 닮아 있다. 그리고 재물에만 눈이 먼 도적이 되기보다 마치 무명(武名)을 중시하는 무사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조한의 용자(勇姿)는, 동시에 그를 쓰러뜨린 요시쓰네의 존재와 영웅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에보시오리〉의 고명(古名)은 〈現在熊坂〉라 하며, 이것은 별도로 요시쓰네에게 패사한 구마사카 조한이 시태로 등장하는 곡 〈구마사카(熊坂)〉가 〈幽靈熊坂〉로 불렸던 것에 기인한다. 〈에보시오리〉의 조한은 오로지 요시쓰네의 칼에 쓰러지기 위한 악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요시쓰네 전설에 보다 색채를 더하기 위한 존재로, 성인이 된 영웅의 첫 번째 활약에 부족하지 않은 인물로 조형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적의 입장이라는 기묘한 시각을 취하고 있는 〈구마사카〉가 별도로 창작된 것도 그가 단지 비열하고 악한 인물만은 아니라는 〈에보시오리〉와 유사한 태도 하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구마사카 조한이라는 헤이안 말기의 전설적인 도적이 요시쓰네 전설의 캐릭터로 혼입되었고, 시마즈 히사모토는 이 도적 퇴치담에 전항의 겐푸쿠 전설을 포함시켜 한꺼번에 ‘구마사카 조한 전설(熊坂長範伝説)’¹¹⁾이라 칭하고 있다.

11) 島津久基(1977) 『義経伝説と文学』 大学堂書店、p.273.

이와 같은 인물상은 후에 한층 다양하게 각색되어, 가령 『이혼기케이키(異本義経記)』에서는 각각 한(漢)을 대표하는 지장과 용장인 장량(張良)과 번쾌(樊噲)의 이름자를 따서 ‘熊坂張樊’이라 명명했다는 이야기를 싣고 있으며, 혹은 고야산(高野山)에서 발심(發心)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를 빼 던지며,

高野山 峰の嵐は 烈しくと このはは残れ 後の形見に

『新著聞集』第一八 雑事篇

라고 읊었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다. 이처럼 구마사카 조한 관련 전승이 널리 퍼져 나간 결과 에도 시대(江戸時代)에는 가부키(歌舞伎)·조루리·구사조시(草双紙) 등 다양한 문학과 예능 속에서 도적·의적의 대명사로 빈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후세인들이 무려 한의 명신(名臣)인 장량이나 번쾌까지도 끌어들이 그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게 될 만큼 구마사카 조한 전설이 굳게 뿌리를 내린 까닭은, 노 <에보시오리>와 같은 초기 작품에서 그를 『기케이키』의 유리노 다로 등과 같이 단순히 재물을 노리는 평범한 도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창작 태도에서 그 원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고카타(子方)—우시와카마루(牛若丸)의 조형

노 <에보시오리>의 소재가 된 우시와카의 오슈 행(牛若東下り)은 기본적으로 영웅전설 내지 오리쿠치학(折口学)에서 말하는 귀종유리담(貴種流離譚)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의 분석에 의하면 세계 각지의 다양한 신화와 종교, 전설 속 영웅담은,

비정상적인 탄생 → 어린 시절의 고난과 방황 → 조력자와의 만남 → 초인적인 능력의 획득 → 화려한 귀환 → 비극적인 죽음

이라는 공통적 구조¹²⁾를 취하며, 본 전설 또한 다름 아닌 우시와카의 고난과

방향, 조력자와의 만남이라는 테마를 기본 골자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보시오리>의 주역, 즉 마에시테와 노치시테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각각 에보시오리와 구마사카 조한이지만, 두 사건의 실질적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우시와 카마루, 즉 고카타이다. 고카타의 활약을 중시하는 것은 이 곡의 작자로 전해지는 미야마스(宮増)¹³⁾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¹⁴⁾의 하나이기도 하며, “子方宜しからでは出来ざる能なり(고카타가 빼어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곡이다)”라는 내용이 『린추히쇼(隣忠秘抄)』¹⁵⁾에 남아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고카타의 기량이 중요한 곡이라 할 수 있다.

뼈대가 동일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한 작품에 따라 각각의 역할과 인물상에 미묘한, 혹은 현저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음은 이미 에보시오리와 조한을 통하여 살펴본 바 있다. 노의 에보시오리가 우시와카의 조력자이며 축복자로 묘사된 것에 비하여 고와카마이에서는 그 인상이 매우 옹고, 후대의 조루리에서는 오히려 악역으로 변형되었듯이 전설, 즉 소재는 작자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거듭나게 된다. 물론 그 주인공에 해당하는 우시와카의 인물상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이야기는 우시와카가 기치지와 함께 도성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노 <에보시오리>의 우시와카는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한 채, 기치지 일행에게 동행을 부탁한다.

子方「なうなうあれなる旅人。奥へ御下り候はゞ御供申し候はん。

ワキ「やすき間の御事にて候へども。御姿を見申せば。師匠の手を離れ給ひたる人と見え申して候ふ程に。思ひも寄らぬ事にて候。

子方「いや我には父もなく母もなし。師匠の勘当蒙りたれば。たゞ伴ひて行き給へ。

ワキ「此上は辞退申すに及ばずして。此御笠を参らすれば。

12) Joseph Campbell 著, 이윤기 訳(2004)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p.491.

13) <撰待>를 비롯하여 <鞍馬天狗> <烏帽子折> 등의 작자로서 각종 작자부기(作者付)에 그 이름이 보이나, 그 정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으며, 빼어난 와키카타(ワキカ)였다는 기록 정도가 남아 있다. 그의 창작으로 전해지는 곡에는 호간모노(判官物), 소가모노(曾我物) 등 대중의 취향을 반영한 흥미 위주의 연극성이 짙은 작품이 많다.

14) 西野春雄(1987) 『中作能の作者と作品(四) 宮増の能』 『岩波講座 能・狂言 III 能の作者と作品』 岩波書店, pp.243-255.

15) 에도 시대(江戸時代) 초기, 기슈 번(紀州藩)의 노(能) 연기자였던 도쿠다 지카타다(徳田隣忠; 1679-?)의 저작.

子方『牛若此笠おつ取つて。今日ぞ始めて憂き旅に。

地謡『粟田口松坂や。四の宮河原逢坂の。関路の駒の後に立ちて。いつしか商人の主従となるぞ悲しき。

能 〈烏帽子折〉

우시와카는 기치지의 허락 아래 그들과 함께 오슈로의 먼 길을 떠나게 되지만, 이것은 결코 편안한 여정이 아니다. 부모도 스승도 없는 외로운 소년의 “憂き旅”이며, 본디 고귀한 가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상인의 종자로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悲しき” 길이다. 이것은 『기케이키』의 기치지가 마치 가신이나 종자와 같은 위치에서 겐지의 자제인 사나오를 떠받들고 있는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この男に知らせばやと思し召し、近く召して仰せられけるは、「汝なれば知らするぞ。人に披露あるべからず。われこそ左馬頭の子にてあれ、秀衡がもとへ言づけせばや。何時頃か返事を取りてくれんずる」と仰せられければ、吉次座敷をすべりおりて、烏帽子の先を地につけて申しけるは、「御事をば秀衡懇切に申され候。文よりもただ御下り候へ、道のほどの御宿直仕り候はんずる。」と申しければ、文の返事待たんも心もとなし、さらば連れて下らばやと思し召しける。「何時の頃下らんずるぞ。」明日は吉日にて候ふあひだ、形の如くの門出で仕り候ひて、明後日は必ず下り候はんずる。」と申しければ、「さらば粟田口十禪師の御前にて待たんずるぞ」と宣ひければ、吉次、「承り候ひぬ」とて、下向してげり。

『義経記』卷第一 遮那王殿鞍馬出の事

의지할 곳 없는 〈에보시오리〉의 우시와카가 스스로 나서 오슈로 내려갈 길을 모색하는 것에 비하여, 사나오는 그저 기치지가 마련한 대로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되는 길이다. 이후의 관례 또한 기치지의 준비로 아쓰타 신궁에서 격식을 갖추어 치러지며, 은덕을 베푸는 입장인 오슈의 히데히라마저도 요시쓰네를 깎듯이 주군으로 대접하는 등 요시쓰네를 미화, 귀인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그의 귀공자연한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본 전설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시련, 고난의 이미지가 매우 희미해지는 경향을 부정할 수 없다.

반면, 고휌카마이 『에보시오리』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ただしといふに、御身がやうになまめひたる若き人を、徒士にて路次を連れむ
ずるが大事。今日よりして、吉次が太刀を担いて奥へ下り候へ。其否と思ひなば、是
より都へ上られ候へ。」

あらいたはしや、牛若殿、いつ酌取り習ひたる事御座なけれども、時世に従ふ習
ひとて、「をつ」と答へて召さるるに、まことに取り習はざる事なれば、銚子の酒を
弓手馬手へさつさつとこぼし給ふ。吉次きつと見て、大の眼に角を立て、「不覚の者
が。人の御前の御酌をば、さやうに給はるものか。奇怪なり。罷り立て。」と叱る。

幸若舞「烏帽子折」

우시와카가 스스로 관례를 올린 후 에보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기치지는
그에게 자신의 칼을 받들고 따라오기를 강제하며, 거부하겠다는 도성으로 돌아가
라고 명한다. 또한 아오하카의 숙소에서 술자리가 벌어지자 우시와카를 불러 술을
치도록 하고, 서툰 손놀림 때문에 술이 쏟아지자 눈을 부릅뜨고 난폭한 태도로
욕설을 퍼붓는 모습도 보인다. 곳곳에 “いたはしや”라는 평어가 들어가 있는 것처
럼, 아무도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락한 가문의 공자가 당하는 고난이 가련
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상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치지의
캐릭터를 통하여 우시와카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는가에서 나타난다. 『기케이키』
의 기치지가 순수한 요시쓰네의 조력자라면, 고휌카마이의 기치지는 조력자라기
보다 ‘人買い’의 이미지¹⁶⁾를 지닌 고압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고난을 부여하는
자라는 인상이 강하다. 기치지의 상반된 캐릭터를 이용하여 요시쓰네를 고귀한
귀공자, 혹은 가련한 소년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 〈에보시오리〉의 작자는 이 전설의 핵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치지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조력자의 역할은 온전히 마에시테인 에보시오리
로, 주인공이 극복해야 할 난관은 노치시테인 구마사카 조한으로 국한하고 있
다. 기치지는 와키(ワキ)로 등장하고 있으나 우시와카를 오슈로 데려가기 위한

16) 島津久基(1977) 『義経伝説と文学』 大学堂書店、p.281.

角川源義(1975) 『義経記』の成立』 『語り物文芸の発生』 東京堂出版、p.226.

안내자일 뿐이며, 스토리에 관여하는 역할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에보시오리>는 우시와카의 활약이 시테를 능가할 정도로 고카타의 비중이 큰 곡이며, 여기에 와카의 역할까지 더해진다면 지나치게 많은 등장인물에 극의 초점이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치지에게까지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곡의 우시와카는 『기케이키』나 고와카마이와 달리 기치지의 캐릭터와 독립되어 조형될 필요가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에보시오리>의 모두(冒頭)는 결코 밝은 분위기라 할 수 없다. 고와카마이와 같은 기치지의 흑독한 태도나 멸시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商人の主従となるぞ悲しき(상인의 종자가 되다니 서글프도다)”와 같은 대사로 보아 『기케이키』처럼 ‘주군’의 입장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오슈로 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체를 숨긴 채 상인의 종자로서 고달픈 여행길을 떠난 우시와카는 이후 소년의 모습으로 길을 가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 헤이케 일당에게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성인 남자의 차림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子方「唯今の早打をよくよく聞き候へば。我等が身の上にて候。此俣にては適ふまじ。急ぎ髪を切り烏帽子を着。東男に身をやつして下らばやと思ひ候。

能 <烏帽子折>

어른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경사스런 행사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임시방편으로 치러야 하는 처량한 관례이며, 이 또한 그의 불우한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노 혹은 고와카마이의 설정은 『기케이키』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극적인, 소위 ‘호간비이키(判官鬣貞)’적 정서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와카마이 『에보시오리』에서와 같이 누군가의 시중을 들거나 멸시를 당하는 굴욕적인 장면은 그려지지 않는다. 물론 기치지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마에시테와의 대면 부분에서도 작자의 의도는 여실히 드러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左折り”의 에보시를 원하는 우시와카를 다짜고짜 꾸짖는 고와카마이와 달리 <에보시오리>의 시테는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청을 받아들이고, 그 에보시에 얽힌 겐지의 영광을 상기하

며 이 정체 모를 소년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에보시오리의 예리한 안목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불우한 상황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우시와카의 귀종성(貴種性)을 암시하는 묘사이기도 하다.

シテ「かやうに祝ひつゝ。

地謡「程なく烏帽子折り立たてゝ。花やかに三色組の。烏帽子懸緒取り出し。氣高く結ひすまし召されて御覽候へとて。お髪の上に打ち置き立ち退きて見れば。天晴御器量や。これぞ弓矢の大将と申すとも不足よもあらじ。

シテ「日本一烏帽子が似合ひ申して候。

能 〈烏帽子折〉

완성된 에보시를 씌워 주면서 “これぞ弓矢の大将と申すとも不足よもあらじ(이야말로 무사의 대장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日本一烏帽子が似合ひ申して候(일본에서 으뜸으로 에보시가 잘 어울린다)”와 같이 상찬하는 대사는 더 더욱 우시와카의 귀인다운 모습을 강조한다.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에보시오야(烏帽子親)도 없이 서둘러 관례를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고와카마이와 다르지 않지만, 우시와카의 범상치 않은 기품이나 외양을 통하여 역경 속에서도 그 존재가 부각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케이키』 등에 보이는 지고(稚児)로서의 여성스런 미모¹⁷⁾라기보다, 무장으로서의 당당한 풍채에 대한 찬사라는 점에서 소년→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그린 본 전설의 성격에 보다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와카마이 『에보시오리』의 우시와카가 자신의 불운한 신세를 한탄함으로써 그 비참한 처지를 한층 강조하는 것에 비하여, 〈에보시오리〉의 우시와카는 의연한 태도로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 南都・山門までも聞こえたる稚児の、一昨日鞍馬を出でたることなれば、きはめて色白く鉄漿黒に、薄化粧して眉細くつくりて、衣ひきかづき給ひたりければ、姿松浦佐用姫が領巾振る山に年を経て、寝乱れ髪の際より、乱れて見ゆる黛、鶯の羽風にも乱れぬべくも見え給ふ。玄宗皇帝の時ならば、楊貴妃とも謂ひつべし。漢の武帝の世なりせば、李夫人かとも疑はる。『義経記』卷第二 鏡の宿吉次が宿に強盜の入る事)

牛若殿聞召、「これをたとへに申かや。世は末世に及といへど、月日はいまだ地に落ちず。天上の唐錦下つて、田舎に交はる事なし。何として、源氏の嫡嫡が、浮き世を渡る吉次が太刀を持つぞ。あら、はかなの心やな。吉次が太刀を持たばこそ、冥途にまします父義朝の御佩刀を持つにこそ」と思し召し、髭切の御佩刀を輪束にかけ、吉次が太刀を担いて、奥へ下らせ給ひけり。涙の雨は玉鬢、昔はかけて見じものを。

幸若舞「烏帽子折」

シテ・ツレ「痛はしの御事や。さしも名高き御身の。商人と伴ひて。旅を飾磨の徒歩はだし。目もあてられぬ御風情。

子方「時代に変る習とて。世のため身をば捨衣。怨と更に思はじ。

能〈烏帽子折〉

이와 같은 〈에보시오리〉의 고카타는 아나기다 요이치로(柳田洋一郎)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자인 동시에 강자이며, 지고와 무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겸비한”¹⁸⁾ 모순을 품고 있는 요시쓰네의 복잡한 캐릭터 조형에 훌륭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첫 출진으로서 대도적 구마사카 조한을 쓰러뜨리고 이후 헤이케를 토벌하게 될 소년의 기량은 다음과 같은 대사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シテ・ツレ「人違へならば御許あれ。鞍馬の少人牛若君と。見奉りて候ふなり。

子方「げに今思ひ出したり。もし正清がゆかりの者か。

ツレ「御目のほどのかしこさよ。妾は鎌田が妹に。

子方「たとひ大勢ありとても。表にたゝん兵を。五十騎ばかり斬り伏すならば。やはか退かぬ事は候ふまじ。

ワキ「これは頼もしき事を仰せ候ふ物かな。悉皆たのみ候。

子方「面々は武具して待ち給へ。我は大手に向ふべしと。

能〈烏帽子折〉

18) 柳田洋一郎(1986) 『義経記』의 名의 一 祟り나す 供儀一, 同志社国文学(26), 同志社大学国文学会, p.50.

고와카마이에서 에보시오리의 처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에 비하여 노의 우시와키는 즉시 상대의 정체를 간파하는 총명함이 돋보인다. 또한 도적떼의 습격에 대한 보고를 받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작전을 세우고 주위에 지시를 내리는 무장으로서의 재능을 지니고 있다. 『기케이키』나 고와카마이에서처럼 개인적인 무예만을 과시하는 유치한 영웅담 속 주인공 단계에서 벗어나, 『헤이케모노가타리』 등에서 묘사되는 겐지의 총대장다운 모습까지도 수렴하고자 시도한, 보다 구체화된 인물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을 대신하여

노 〈에보시오리〉는 에보시오리와 구마사카 조한이라는 별개의 인물을 주역으로 택하여, 전장은 우시와카의 관례와 그에 대한 축언, 후장은 다수의 도적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리는 화려한 기리쿠미 장면을 위주로 구성한 대곡이다. 우시와카의 겐푸쿠 전설과 구마사카 조한 퇴치 전설이라는, 일견 독립성이 강한 두 이야기를 연결한 이 곡이 애초부터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나온 바 없으나, 에보시오리는 우시와카의 관례를 위한 조력자이자 축복자로, 구마사카 조한은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하여 넘어야 할 첫 난관이자 시련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면서도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다. 즉 소년 영웅이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두 전설은 공통점을 내포하며, 이 단계를 거쳐 요시쓰네 전설의 배경은 유년기에서 활약기로 이행하게 된다.

이 기념할 만한 의식의 무대를 보다 교묘하게 장식하기 위하여, 〈에보시오리〉의 마에시테는 하치만타로 요시이에 시대부터 겐지 가문과 연을 맺고 있는 유서 깊은 가계의 장인으로, 노치시테는 요시쓰네의 첫 활약의 제물로 부족함이 없는 기개와 힘을 지닌 강자로 조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스토리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우시와카는 『기케이키』의 귀공자연한 모습과 고와카마이 『에보시오리』의 비참한 고아와 같은 모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

하며, 불우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기량과 의연한 태도가 돋보이는 이상적인 영웅의 싹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민중 속에서 싹튼 조야한 단계의 전설이 세련된 문학과 예능으로 다듬어져, 재차 새로운 전설과 문예의 토대가 되어 가는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노와 같이 민중의 반응과 인기에 민감한 예능 분야에서 인물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드러나는 창조적 수용 의식은, 단순한 전설 수준에 지나지 않았을 호간모노의 계보에 보다 정교한 구성과 입체적인 인물상을 갖춘 작품이 차례차례 등장하는 발단이 되어, 선대·동시대와 후대 요시쓰네 문학 사이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후세의 창작욕을 자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환언하면 미나모토노 요시쓰네라는 인물이 일본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한 단면이며, ‘호간비이키’적 심리가 각 시대의 취향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며 국민적 성향을 대변하는 단어로 정착해 나간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단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텍스트

- 麻原美子·北原保雄 校注(1994) 新日本古典文学大系59 『舞の本』 岩波書店.
 梶原正昭 校注·訳(2008)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62 『義経記』 小学館.
 黒板勝美·国史大系編修会 編(1980) 『吾妻鏡 第一』 吉川弘文館.
 小山弘志·佐藤健一郎 校注·訳(2007)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58 『謡曲集①』 小学館.
 栃木孝惟·日下力·益田宗·久保田淳 校注(1998) 新日本古典文学大系43 『保元物語 平治物語 承久記』 岩波書店.
 野々村戒三 編·大谷篤蔵 補訂(1978) 『謡曲二百五十番集』 赤尾照文堂.

단행본

- 角川源義(1975) 『『義経記』의 成立』 『語り物文芸の発生』 東京堂出版, p.226.
 佐成謙太郎(1964) 『謡曲大観』 第五卷 明治書院, pp.3414-3415.
 島津久基(1977) 『義経伝説と文学』 大学堂書店, p.196 p.273 p.281.
 西野春雄(1987) 『中作能の作者と作品 (四) 宮増の能』 『岩波講座 能・狂言 III 能の作者と作品』 岩波書店, pp.243-255.
 Joseph Campbell 著, 이윤기 訳(2004)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p.491.

학술논문

伊海孝充(2009) 『能〈烏帽子折〉の『素材』と変遷—義経伝承の能の問題点—』 軍記と語り物(45)、軍記・語り物研究会、pp.116-119.

_____ (2003) 『観世信光の切合能』 法政大学大学院紀要(51)、法政大学大学院、p.205.

内山美樹子(1997) 『『烏帽子折』をめぐって』 芸能史研究(138)、芸能史研究会、p.18.

柳田洋一郎(1986) 『『義経記』の名のり —崇りなす供儀—』 同志社国文学(26)、同志社大学国文学会、p.50.

❖ 투고일 : 2012.06.30

❖ 심사일 : 2012.07.24

❖ 심사완료일 : 2012.08.06